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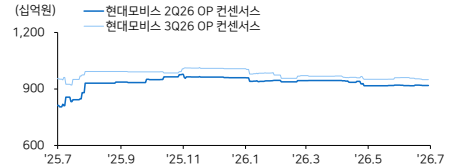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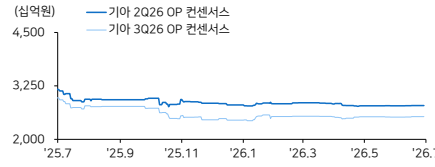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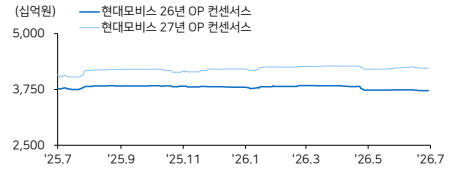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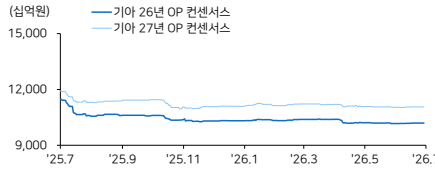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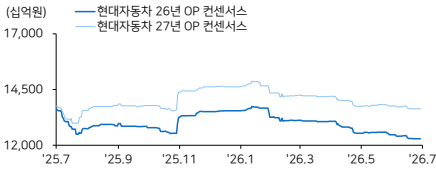
2026.7.3 (금)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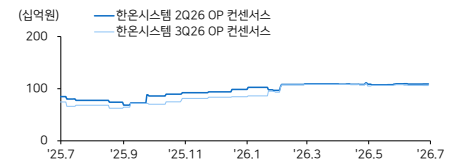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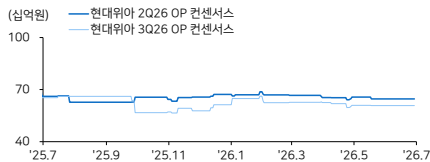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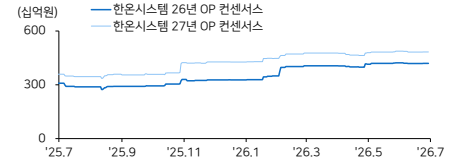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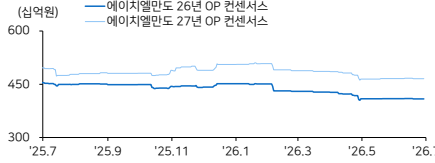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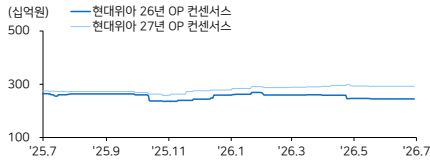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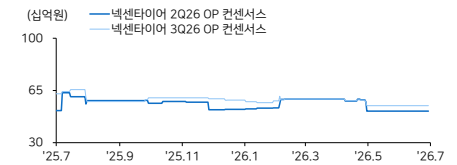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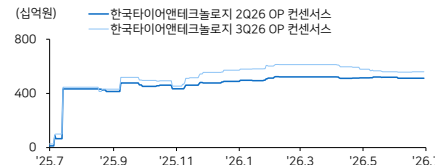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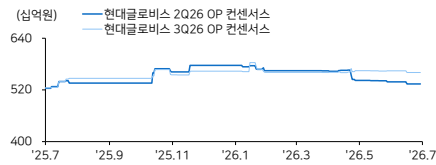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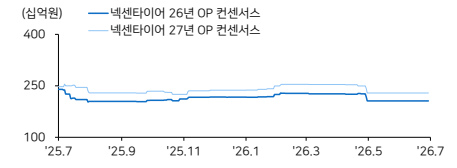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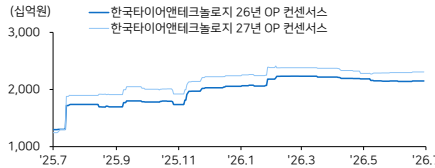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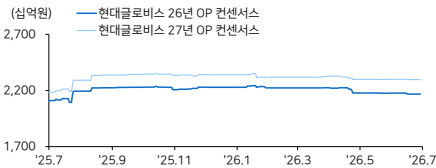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보스콘다이내믹스 '로봇 하드웨어 및기연 위젯'...美 '국가 로봇 전략' 속구 (더구루)

제이슨 피오렐로 BD CLO는 지난달 30일 미 연방의회와의 한 입법 제안 청문회에 출석해 로봇 경쟁력을 위해 더 넓은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 산업을 총괄할 '국가 로봇위원회'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GM 광고료 주춤할 때...현대차·기아, 상반기 실적 92만대 판매로 '역대 최고' (뉴시스)

현대차·기아 양사의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판매량은 총 92만383대(+3% YoY)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26만514대(+4.7% YoY)를 기록하며, 친환경차 판매량이 반기 기준 25만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상반기 인도 판매 16만3000대 돌파...사상 최고치 경신 (더구루)

기아 인도법인인 울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20% 늘어난 16만3749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기아는 인도 정부 가 전기 차량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라인업을 강화해, 판매량 확대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Tesla (TSLA) Q2 2026 deliveries jump 25% to 480,126, beating estimates (Electrek)

Tesla가 2분기 총 480,126대의 차량을 인도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한 실적을 기록. 이는 컨센서스를 약 74,000대나 웃도는 실적이다. 지난 2년간 이어지던 인도량 감소세를 끊어내고 처음으로 YoY 기준 +성장을 달성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USMCA 연장 거부...북미 무역협정 매년 재검토하기로 (더구루)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장기 갱신을 부류하고 북미 무역협정을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다시 협상 의제로 올리면서 북미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신사업·공용 노조와 협의하라"...현대차, 노조 요구 수용 (서울경제)

현대차 노사는 신사업을 진행할 때 자신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한 노조의 안을 수용. 사측은 기존에 자동차 부문에서만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창구를 열어놓았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 수소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노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연 것이다.

현대차, 6월 인도 판매 15.74% 수직하락...현대모비스 공장 화재 직격탄 (더구루)

현대차가 6월 인도 시장에서 현대모비스 타밀나두 공장 화재로 직격탄을 맞음. 이번 화재로 현대차는 1만3900대 생산 손실을 입었는데, 대체 부품 조달 등 생산 정상화 조치를 완료한 만큼 3분기 내 생산 손실을 만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현대모비스, 해외 법규사업부 5천억에 편다 (매일경제)

현대모비스의 해외 법규 사업부를 5000억원에 국내 증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나눠 인수할 예정. 현대모비스는 전통 제조 부문 인 법규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로보틱스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 美 프리몬트 옵티머스 생산라인 감독 공개 (더구루)

일론 머스크 Tesla CEO, '프리몬트 공장 내 옵티머스 생산라인을 둘러봤다'며 옵티머스 양산 전용 라인업의 사진을 공개. 사진에는 머스크가 중심으로 옵티머스 생산라인 전환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으나, 설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중국 후 수출 1000만대 넘을 듯...고유기에 전기차 수요 급증 (뉴시스)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은 중국 내수 시장 둔화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추세 유지될 경우 올해 중국 자동차 수출이 1,000만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